고흥군, 청정 자연 웰빙이 만든 8품 특산품을 아시나요?

유자·김·미역·굴·유자골한우 등 건강과 맛 모두 잡는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고흥 8품'을 중심으로 지역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흥군의 8품은 유자, 석류, 김, 미역, 다시마, 굴, 마늘, 유자골한우로,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1품 유자는 비타민 C와 칼슘, 헤스페리딘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예로부터 동짓날 유자차를 마시거나 유자를 띄운 물로 목욕하면 감기를 예방한다는 민간 풍습이 전해진다.

2품 석류는 과즙이 풍부하고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아 갱년기 여성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항산화 성분 덕분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3품 김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마른 김 5장에는 달걀 1개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으며, 전국 김밥용 김 생산량의 약 80%가 고흥에서 생산된다.

4품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요오드와 철분이 많아 산모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고흥산 미역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5품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알긴산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칼륨과 라미닌 성분이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고흥산 건다시마는 국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으며 연간 500여 톤이 위판된다.

6품 굴은 칼슘과 비타민,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 피부 건강과 빈혈 예방에 좋으며, 남해 청정 해역에서 '수하식'으로 양식되어 살이 통통하고 맛이 뛰어나 '바다의 우유'라 불린다. 굴로 만든 어리굴젓 '진석화젓'과 '피굴'은 담백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다.

7품 마늘은 비타민 B와 알리신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며, 전국 재배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는 고흥산 마늘은 조개껍데기 폐화석 비료로 재배해 품질이 뛰어나다.

8품 유자골한우는 삼면이 바다인 청정 반도 지형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질병 통제에 유리하며, 유자를 활용한 기능성 사료로 장염과 설사 예방, 면역력 강화, 성장 촉진 등 건강한 사육이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8품은 청정 자연환경과 농어업인의 정성이 담긴 대표 특산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홍보와 품질 경쟁력 강화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암군, 영암읍 남풍지구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박차

전남광주 통합 공공기관 유치 계획

영암군이 영암읍 남풍지구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영암군은 군청에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 NS종합건설과 '남풍지구 행정복합타운 입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영암군이 남풍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공공기관 입주사업'의 물꼬를 트는 행사.

영암군은 남풍지구 27만8,578㎡에 공공청사,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원, 광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3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2년간 공사를 거쳐 행정과 복지, 주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행정복지타운을 세울 예정이다.

협약에서 도포면의 영암국유림관리소, 영암읍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는 남풍지구 공공청사 부지로 신축 이전을 약속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입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암군은 남풍지구가 조성되면 주요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영암군민의 편의가 증대되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남풍지구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 부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택단지 민간투자 및 분양 수요에 대응하는 곳으로 만들어 국토 서남권 행정 중심지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 청년의 꿈과 가능성 응원하는 '청년창업공간' 개소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3층 위치, 청년 기업 입주 창업 활동 본격 지원

전남 나주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거점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3층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년창업공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추진한 전국 첫 협력사업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창업공간은 323㎡(약 1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개별 사무실 8개실과 회의실, 휴게실 등 총 10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 공간은 시제품 개발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청년 창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공간 조성 방향을 논의하고 입주 기업 모집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 2월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제조업과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순차적으로 입주해 업무를 시작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창업공간 개소를 통해 나주시가 청년 친화형 창업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군, 금실 딸기 육성 본격화…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딸기 농업인 연구회 대상 현장 컨설팅 및 재배기술 지도 추진

전남 곡성군이 국내 육성 신품종인 '금실' 딸기 재배 기술의 확산을 통해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수출 딸기 농업인 연구회 농가를 대상으로 금실 딸기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실 딸기의 안정적인 재배 기술을 정착시키고 곡성 딸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 주식회사 소속 수출딸기 농업인 연구회 농가 12명이다.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장소는 각 농가에서 진행된다. 군은 농가 육묘장을 직접 방문해 육묘 관리 요령과 재배 환경을 점검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실 딸기 재배기술과 수출용 품질관리 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 수출딸기 농업인 연구회는 현재 약 2.8ha 규모로 수출용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기존 수출 품종이었던 설향에서 2024년부터 수출 전용 품종인 금실로 전환해 해외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금실은 과형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좋아 동남아 수출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곡성군의 딸기 수출 규모는 약 34톤으로 예상되며, 수출액은 약 8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이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물량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농가들은 국내 딸기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수출 재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이정수 기자

완도군, 20억 투입 신지 명사십리 재생 사업 본격 추진

바다 조망 데크, 포토존, 태양광 LED 종합 안내판 등 설치

완도군이 군 대표 관광지인 신지 명사십리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해 전남도 주관으로 선정된 「2024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신지 명사십리가 지난 2007년 11월 관광진흥지구로 승인받은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신지 명사십리 주 출입구 인근에 바다 조망 데크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노후 옹벽 등 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제1주차장 앞 관광 안내판 포함 총 3개소에 스마트 태양광 LED 종합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야간 상시 정확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편의시설 안내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 출입구 경사로 등을 정비해 누구나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콘텐츠도 개발해 해양치유 관광의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 센터 외벽과 데크 로드에 야간 조명과 미디어 아트 요소를 도입하는 등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전남형 지역성장 사업인 '힐링해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신지 명사십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담양군문화재단, 갑질 예방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추진

갈등 예방 위한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진행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 이하 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배려와 존중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 내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갑질 문화가 없는 청렴한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향후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임직원이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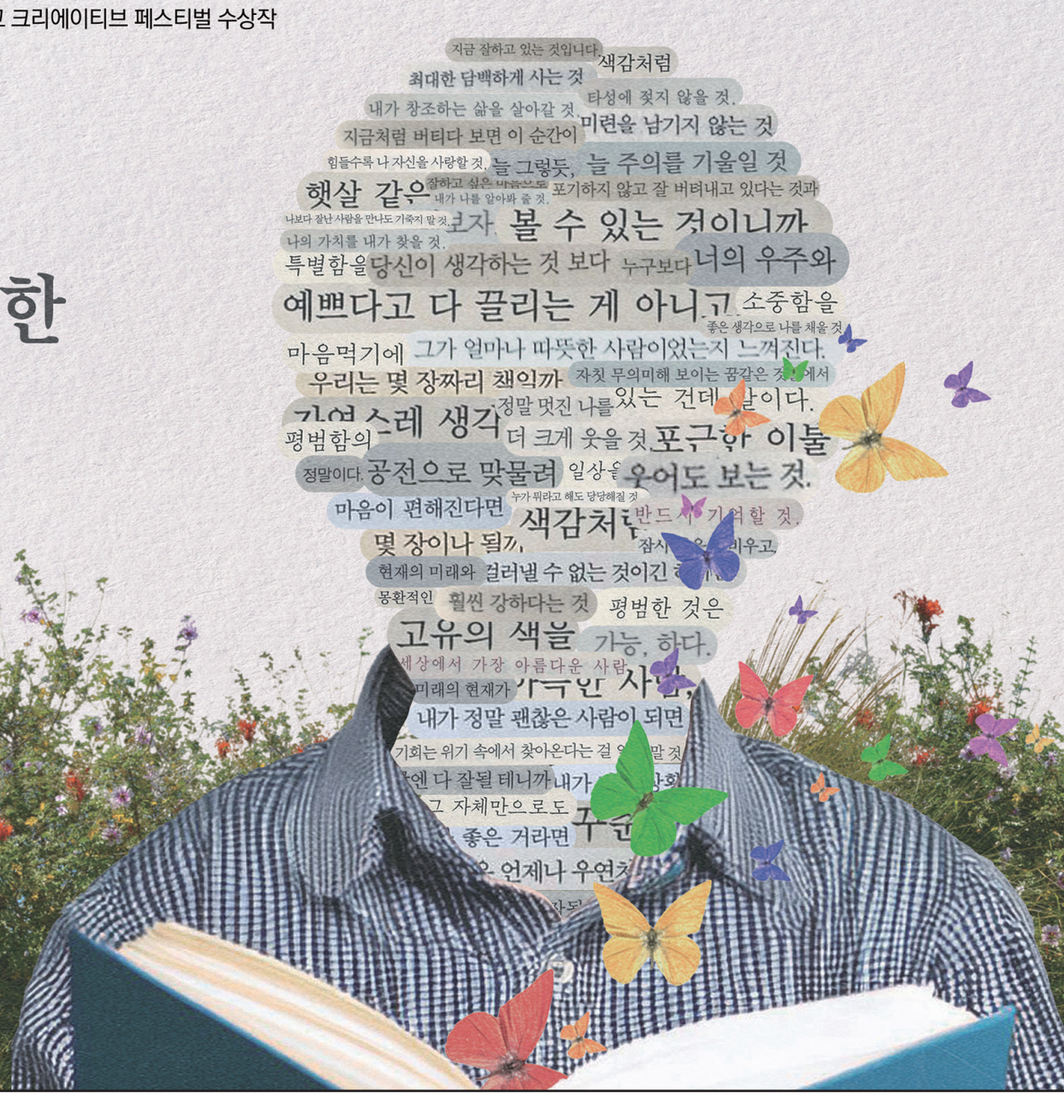
담양/이종옥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